



아이의 신호등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아이의 적신호와 청신호

출간일 : 2011년 12월 29일 | 정가 : 13,800원 | 페이지 : 288쪽

“별 말 없이, 괜찮다고만 말하는 내 아이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는 걸까?”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는가를 살펴보면 눈앞에 이야기가 펼쳐진다. 모든 아이들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이다. 무릇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가짜 적신호, 즉 경계심을 자극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징후들이 들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부모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적신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있다. 이 책은 내 아이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부모로서 그 이야기를 언제 조금이나마 교정할 수 있는지를 밝혀낼 방향을 알려주고자 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1.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신호에 아이의 미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산만해서 나중에 학교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도 욕심을 부리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금만 낮은 사람이 와도 쭈뼛거리는데 친구는 잘 사귄 수 있을까? 아이의 오늘에서 내일까지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책은 아이는 어떻게 자랄지 보여주며 자라고, 부모는 그 신호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늘 걱정하는 우정, 지능, 인성, 성공, 사랑, 행복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아이의 신호를 제대로 읽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들과 속기 쉬운 가짜 신호, 진짜 위험 신호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30여 년간 아이 성장을 연구해온 발달심리학자이자 세 아들의 엄마,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온 교육자이다. 자신의 연구와 경험에 더불어 발달심리학 100년의 통찰을 집대성해 이 책에 담았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적어 아이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운 불안한 양육의 시대,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지혜들이다.

“윌리엄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연구실에서 직접 발달심리학을 데리고 나와 부모에게 적신호와 적신호가 아닌 것을 가릴 해안을 선사하고 있다. 아이의 인생에 자주 개입하게 될 때마다 되읽는다면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아이 행동을 다시 보게 할 그런 책이다.”

-신의진(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 추천사 중에서

2. 아이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지능, 행복의 문제까지 발달심리학 100년의 통찰과 지혜로 읽어내다

2-1. 인간관계

저자는 심리학자들이 교실에서 찾아낸 배척당하는 아이의 유형과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을 살핀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의 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친구를 사귀는데 방해가 되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질은 무엇인지를 심리 실험으로 보여준다.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결국은 아이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격려를 담았다.

-내향 배척형 아이 vs 공격 배척형 아이 vs 방치된 아이 49~56쪽

-캐런 비어먼과 스티브 애셔의 사교성 훈련 심리 실험 63~64쪽

-제롬 케이건의 저반응성 아기 추적 연구 73~75쪽

-또래 친구에게 무시당했지만 훌륭한 성년이 된 패트릭의 사례 80~86쪽

2-2. 지능

저자는 모든 아이는 저마다 뛰어난 지능이 있다는 주장으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다중지능 이론보다 지능은 유전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향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온 IQ 이론에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저자는

IQ야말로 아이 지능의 신빙성 있는 신호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IQ와 관련한 수많은 데이터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쳐 지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고, 부모에게 명쾌한 조언을 던진다. 아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 1037명의 신생아 추적으로 발견한 IQ의 항시성 98~100쪽
- 백인보다 흑인이 IQ가 낮은 이유-편견의 위험성 102~108쪽
- 선생님의 부정적 예상이 아이의 IQ에 미치는 영향 113~114쪽
-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 아이보다 IQ가 높은 이유 114~120쪽
- IQ와 성적의 상관관계 "서른 살이 된 어른에게 기능적인 지능은 더 이상 잠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배우고 이루어낸 것이다." 120~124쪽

2-3. 인성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 과정을 통해 현재 내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도덕성을 살펴보고, 어린아이의 이기적인 행동이 나쁜 인성의 신호가 아닌 이유를 살핀다. 더불어 착한 성격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를 부모가 개선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례로 거짓말 잘하는 한 여자아이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142~143쪽
-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보이는 적대적 공격성 147~149쪽
- 페시바흐의 아이의 감정이입도 높이기 심리 실험 150~151쪽
- 거짓말 잘하고 잔망스러운 애니의 변화 164~165쪽

2-4. 성공

모두들 빌 게이츠나 아인슈타인이 보여주는 성공은 희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성공담을 좇고 아이에게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아이러니를 언급하며, 좀 더 보편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이의 미래를 예견하는 신호와 단 하나의 위험 신호를 살핀다. 또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 상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리처드 네스빗의 동기 부여 심리 실험 174쪽
- 부모가 아이에게 심어준 인생관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수행지향형 vs 성취지향형 175~179쪽
- 제롬 케이건의 연구에서 나타난 충동성 짙은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 186쪽

2-5. 사랑

저자는 미래 아이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의 명확한 신호는 바로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여러 심리 실험을 총동원한다.

- 프레데릭 2세의 실험-애착 없는 보살핌의 위험성 203~204쪽

-필립 세이버가 찾아낸 성인의 애정관계와 에인스워스의 애착 유형의 유사성 214~215쪽

2-6. 행복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우울한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통해 내 아이의 세계관을 가늠케 한다. 또한 이런 아이들도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한다.

-비관적 아이와 낙관적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 240~243쪽

-성인 우울증 치료법을 도입해 아이의 시각을 바꾼 마틴 셀리그먼의 심리 실험 244~247쪽

저자 소개

수전 앵겔 Susan Engel

저자 수전 앵겔은 <뉴욕타임스>의 인기 교육 칼럼 '레슨'의 저자이며 뉴욕의 실험학교 헤이 그라운드(Hey Ground)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발달심리학자의 길을 걸어온 30여 년 동안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대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이 아이들을 통해 성장 과정의 다양한 신호를 관찰하고 연구해 왔다. 그의 수업은 인문학 분야 미국 최고 대학인 윌리엄스 대학교의 최고 인기 강의 중 하나다. 쓴 책으로는 <Real Kids: Creating Meaning in Everyday life>, <Context is Everything: The Nature of Memory> 등이 있다.

윤진이 이주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동작가이자 번역가 에이전시 '하니브릿지'에서 아동서와 자녀교육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양육 쇼크》, 《아빠 딸을 이해하기 시작하다》, 《지금 행복하리》, 《카즈딘 교육법》, 《놀이의 힘》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반쪽이》, 《공중이 팔중이》 등이 있다.